

## 공동활동/생활과 주관적 안녕감\*

김완석 · 김영진

아주대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공동활동/생활 경험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16개의 공동활동/생활 모임에서 표본 추출한 684명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모임의 특성과 개인적 참여 양상, 모임의 조직적 특성 지각, 모임의 지향성에 대한 인식, 모임을 통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경험과 의미 지각을 묻는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아울러 주관적 안녕감을 알아보기 위해 삶에 대한 만족도, 정서경험 빈도, 낙관주의 척도 등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1) 모임활동을 통한 정보교환과 정서-심리적 부담감이 인생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며, 2) 모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주관적 안녕감과 직접 관계없는 것으로 나왔고, 3) 모임의 구조적 특성인, 개방성, 민주성 및 사회성은 인생 만족도와 부정적 감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왔다. 특히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진, 낙관주의와 같은 개인의 성격 요인이나, 나이와 가구 소득과 같은 인구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배제한 후에도, 공동활동/생활의 제반 측면이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한 공동활동/생활의 여러 측면에 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공동활동/생활 모임(이하 공동모임이라 줄임)이 시도되고 있다. 혈연과 지연 등에 기초한 전통적인 공동모임이 약화되고 있는 반면, 공동의 이익이나 관심 등을 매체로 하는 새로운 공동모임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PC통신 동호회와 같은 정보화 사회의 특징이 반영되는 공동활동이 있는가 하면, 환경 보호와 생활을 접목시키는 공동모임이 있고, 육아문제와 같은 구체적인 문제 해결 집단도 있다. 특정한

종교적 배경이 중심이 되는 집단이 있는가 하면, 단순히 같은 주거 공간에서 일어나는 공동모임도 있다. 실제로 모든 공동모임 집단을 나열하고 분류하는 작업이 쉽지 않을 정도의 다양한 공동모임이 현재 한국사회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공동모임의 변화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 혹은 어떤 심리사회적인 욕구를 얻고자 새로운 공동모임이 나타나는 것일까? 혈연, 지연 등에 기초한 공동모임과 새롭게 등장하는 공동모임 집단은 어떠한 유사성이나 차이가 있을까? 이러한 공동모임 단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심리사회적인 하위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는가? 이들 공동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들 집단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을까, 혹은 이들 공동모임이 참여자들에게

\* 이 논문은 1997년도 학술진흥재단 인문사회과학 분야 중점 영역 연구비에 지원에 의한 것임. 본 연구에 참여해준 16개 공동활동/생활 모임의 성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각 모임의 핵심구성원들은 한시간 넘는 면담에 기꺼이 응해 주었으며 설문 조사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들 공동모임 집단이 참여자들에게 만족을 주고 있는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만족을 주지 못하면서도 공동모임을 지속하게 하는 힘이 있을까?

공동모임과 관련된 이와 같은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사회과학도들의 과제가 될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한 의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즉 공동모임이 참여자들에게 만족을 주고 있는가, 혹은 공동모임이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이 있는가를 탐색하고자 한다.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다음 두 가지 점을 미리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는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이다. 공동모임과 만족감(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과연 연구할 필요가 있는가, 혹은 이론적인 중요성이 없는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참여자들이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며, 만족을 주기에 특정한 공동모임을 지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 이러한 단순 인과성은 적용되지 않는다. 복잡한 참여의 동기가 있고, 공동모임을 통해 주관적 만족 이외의 여러 복합적인 기능을 달성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연구 방법과 관련되어 있다. 공동모임과 주관적 만족감의 관련을 알아보는 방법으로, 역시 상식적인 수준에서, 단순히 “어떤 공동모임에 참여하십니까?” “그 공동모임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와 같은 여론조사 방식의 질문을 통해 알아보면 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만으로는 주관적 만족을 주는 공동모임의 기저 요인이나 기능 혹은 참여자에 대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 연구 방법을 기술한 문단에서 다시 언급할 것처럼, 공동모임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와 주관적 안녕 척도를 통한 조사가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동모임과 주관적 만족감의 관계는 여러 이론적, 실용적 중요성을 갖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여러 영향요인들과 과정을 밝히

고 있지만 비공식적 공동모임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구의 개인주의적 성향과는 달리 남과의 관계나 집단소속감을 매우 중시하는 집단주의적 특성이 강한 우리 나라 사람들은 공식적 조직 이외에 매우 다양한 비공식적 모임활동을 하고 있다. 예컨대, 우리 나라 성인남성들은 평균 2.4개의 비공식모임에 참여하고 있으며, 여성도 평균 1.7개의 모임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숙, 김영진, 김완석, 나은영, 이종한, 조성을 및 최진호, 1997). 이런 점에서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공동모임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연구결과들도 사회적 활동이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예컨대, Okun, Stock, Haring, 및 Witter(1984)는 사회적 활동이 주관적 안녕과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이 경향은 노인들에게 현저함을 보고한 바 있다. 또한, Quevillon과 Lee(1983)도 시설에서 생활하는 38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여가 주관적 안녕의 예측 요인이 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사회 활동의 빈도, 그 활동에서 느끼는 즐거움(pleasantness), 및 주관적인 삶에 대한 만족을 측정한 후 중다회귀분석 하였다. 사회 활동의 즐거움은 주관적 만족에 대한 신뢰로운 예언치가 되지만, 활동의 빈도는 관련이 없다는 결과를 얻어, 사회 활동의 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보고하고 있다.

사회적인 관여 혹은 활동과 주관적인 안녕과의 관계를 가장 체계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Cooper, Okamura, 및 Gurke(1992)이다. 이들은 만족감(행복감)과 사회 활동의 관계를 여러 중개 변인의 작용을 염두에 두면서 연구하였다. 즉 1) 의향성, 2) 사회적 용인에 대한 욕구(need for social approval) 3) 네 가지 유형의 사회적 활동(부모, 친척, 친구, 집단)의 빈도와 만족도를 측정하였고, 주관적 안녕의 지표로 삶에 대한 만족, 정서 경험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사회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주관적 안녕에 가장 강한 예언인이 되는 것으로 나왔으며, 성격 요인도 유의한 정적 관계로 나왔다. 그리고 사회 활동의 빈도에서는 집단을 통한 활동의 수가 주관적 안녕과 정적인 관련이 있음을 나타냈다. 이 연구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제한은 있지만, 가장 명확히 사회 활동과 주관적 안녕이 관련됨을 보여주는 연구이다. 더구나 이 두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러 매개 변인을 같이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교훈도 주고 있다.

그러나, 과연 공동모임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미친다면 공동모임의 어떤 측면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가, 사회적 활동의 종류에 따라 주관적 안녕감에 차이가 있는지 등에 관해 아직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연구결과들도 일치하지 않고 있고 또 연구들마다 방법론적인 한계도 있다. 예컨대, 동창회나 친목회, 취미모임과 같은 비공식적 모임활동/생활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으며, 대개의 연구들이 인구통계적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일부 계층 표본만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런 사회활동이 과연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연구결과가 없어서, 주관적 안녕감 분야의 가장 활발한 연구자인 Diener(1984)조차 사회적 활동의 종류에 따라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서로 다른 공동모임의 종류에 따라 주관적 안녕감에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동모임의 종류에 따라 주관적 안녕감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각 모임들의 구성원 특성이 다르고, 모임의 주 목적이 다르며, 모임의 빈도나 참여정도 등도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김혜숙과 최진호, 1997).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임구성원들의 인구통계적 또는 심리적 특성의 개인차가

아닌 공동모임의 특성의 차이가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했다.

공동모임 자체의 특성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자 했다. 하나는 공동모임의 구조적 측면이다. 즉, 모임이 조직화된 정도라든가 의사결정방식, 권한 구조와 같은 측면은 해당 모임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모임에 대한 만족도는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생활측면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공식조직에서의 직무만족에 관한 대부분의 문헌들은 직무자체 뿐 아니라 조직문화 또는 분위기, 상벌제도, 상사나 부하와의 관계, 감독방식 등과 같은 조직의 구조적 특성이나 활동 특성이 구성원들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McCormick과 Ilgen, 1987). 또한 많은 연구들은 직무만족이 주관적 안녕감에도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본 연구의 대상인 모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동모임 모임이 대표적인 비공식조직인 가정과는 달리 공식조직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들 모임은 느슨하기는 하지만 회칙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으며 또한 역할을 분담하는 직책을 구분하고 있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모임의 구조적 특성은 해당 모임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김완석과 김영진(1997)은 다양한 생활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은 바 있어서, 중요한 생활영역인 모임에 대한 만족도가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실존적 경험측면으로서 공동모임에서 구성원들이 실제 경험하는 다양한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경험들의 특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김완석과 김영진(1997)은 주관적 안녕감 척도개발을 위한 연구에서 영역만족도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영역, 가족영역, 사회영역, 환경영역으로 구분해서 분

석한 결과 개인에서 환경으로 영역이 넓어질수록 주관적 안녕감과과의 관계가 약해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런 결과는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판단에는 개인의 삶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일상적 경험들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매우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공동모임의 경험은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였다.

한편, 최근에는 개인의 자기 삶에 대한 만족이나 행복은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경험과 인지적 해석의 누적으로 결정된다는 상향이론적 관점과 성격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 개인의 주관적 만족감 경험을 결정한다는 하향이론적 관점을 모두 포괄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예컨대, Brief, Butcher, George, & Link, 1993; Feist, Bodne, Jacobs, Miles, & Tan, 1995). 김완석과 김영진(1997)은 이런 관점을 받아들여 주관적 안녕감을 결정하는 요인을 연구한 결과 주관적 안녕감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영역에 대한 만족감에 의해서 뿐 아니라 낙관주의 - 비관주의와 같은 성격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입증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김완석과 김영진(1997)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성격이나 인구통계적 특성과 같은 개인차 변인의 영향을 포함시켜 회귀분석함으로써 모임의 구조적 특성이나 실제 공동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정서적 심리적 경험이 주관적 안녕감에 독자적인 영향력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경험들이 더 큰 영향력을 갖는가를 밝혀보고자 했다.

## 방 법

### 조사대상자

조사대상 집단은 몇 가지 원칙을 적용해서 선정하였다. 첫째는 자발성으로서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이루어진 공동모임 단위를 선택하고자 하였다. 둘째는 공동모임의 표면적인 목적이 정치성을 띠거나 영리성을 갖고 있는 집단을 배제하는

것이였다. 셋째는 미래지향성으로서 앞으로의 사회에 활성화될, 즉 미래 사회에 현상적으로 많이 존재할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혹은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집단을 포함시키고자 했다. 네 번째는 보편성으로서 아주 특수한 형태나 몇몇 특수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존재하는 단위들은 제외하고자 하였다. 즉 어느 정도의 보편성을 인정할 수 있는 공동생활의 단위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과 기준에 맞는 특정 집단의 선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연구자들간의 논의에서 도출한 직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일종의 간편법적인 전략(heuristic strategies)이였다. 그 결과 총 16개의 공동활동 집단을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이들 16개 공동모임 집단의 구성원이였으며, 표본추출은 전적으로 사전에 연구자들이 접촉한 집단의 핵심성원들에 의해 편의추출로 이루어졌다. 표 1은 이렇게 선정된 각 집단의 유효표본수와 전체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16개 집단에서 30명에서 60명 정도의 표본을 모았고, 전체 유효표본수는 684개였다. 나이별 분포는 30 - 40대가 60% 정도로 가장 많았고 학력수준은 고졸 이하가 50%, 전문대학 이상이 50%의 분포였다. 남녀의 비율도 거의 같았고 가구수입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49%, 200만원 이상이 51%로 나타났다. 종교별 분포는 기독교가 2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교(20%), 천주교(19%)의 순서였다.

### 질문지

질문지에 포함시킬 문항을 결정하기 위해 각 공동생활 단위의 핵심 인물과의 면접을 실시하여 여러 공동모임의 특성을 일차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원에 대한 설문조사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에서는 기본적인 인구학적 특성 외에, 모임의 특성과 개인적 참여 양상, 모임의 조직적 특성 지각, 모임의 지향성에 대한 의식, 모임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징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b>모임별</b>			<b>성 별</b>		
동창회	58	8.5	남 자	332	48.5
향우회	47	6.9	여 자	329	48.1
상조회	46	6.7	무응답	23	3.4
두레	45	6.6	계	684	100.0
한살림	44	6.4			
PC통신	33	4.8	<b>나이별</b>		
여신도회	48	7.0	10대	6	.9
공동육아	33	4.8	20대	130	19.0
부녀회	52	7.6	30대	214	31.3
노인정	35	5.1	40대	207	30.3
공동APT	51	7.5	50대	62	9.1
독신남자	43	6.3	6 - 70대	62	9.1
독신여자	22	3.2	무응답	3	.4
참길봉사	56	8.2	계	684	100.0
장애인	38	5.6			
등산모임	28	4.1	<b>학력별</b>		
무응답	5	.7	중졸, 고퇴	107	15.6
계	684	100.0	고졸, 대퇴	236	34.5
			전문대졸	55	8.0
<b>종 교</b>			대재	28	4.1
없 음	212	31.0	대졸이상	227	33.2
기독교	186	27.2	무응답	31	4.5
불 교	134	19.6	계	684	100.0
천주교	127	18.6			
천도교	2	.3	<b>직업별</b>		
유 교	4	.6	주부	109	15.9
기 타	2	.3	경영/관리/자유/전문	118	17.3
무응답	17	2.5	사무관련직	51	7.5
계	684	100.0	농/임/수산업	32	4.7
			자영업	37	5.4
<b>가구수입</b>			판매/서비스/영업직	44	6.4
- 100만원	122	17.8	생산/운수/단순	146	21.3
100 - 200	216	31.6	학생	21	3.1
200 - 300	135	19.7	무직	40	5.8
+300	124	18.1	기타	37	5.4
무응답	87	12.7	무응답	49	7.2
계	684	100.0	계	684	100.0

에서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경험과 의미지각 등과 주관적 안녕감, 정서경험 빈도, 낙관주의 척도 등을 측정하는 문항들이었다.

**변인구성**

표 2와 표 3은 각기 본 연구에서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시켜 해석하고자 하는 공동모임의 '심리사

회적인 의미'와 '모임의 조직적 특성지각'을 측정하는 변인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모임이 구성원에게 갖는 심리사회적 경험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모임활동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정서적, 인지적 경험들을 기술하는 24개의 문항을 8개의 요인으로 구분하고 해당문항들을 합쳐서 평균한 값을 각 요인의 점수로 삼았다. 모임의 조직, 기능 및 활동의 다양한 측면에 대

한 지각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했던 11개의 문항을 이용해서 6개의 요인(또는 변인)의 측정치를 구성했다. 또한 집단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자기 집단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만족도)와 그 모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중요도), 그 모임 사람들과의 친밀성의 정도(친밀도)라는 세 측면에서 측정하였고 이들 세 문항을 평균한 모임 만족도를 집단생활/활동의 전반적 만족도 점수로 삼았다.

표 2. 공동모임의 경험요인과 해당문항

요 인	해 당 문 항
정서심리적 안정	즐겁고 재미있다. 마음이 안정된다.
정서심리적 부담	정신적 부담을 준다. 시간투자를 많이 요구한다. 신경 쓸 일이 많다.
사회적 관계	소외감을 느낀다. 아는 사람이 많아졌다. 다른 회원과 갈등이 있다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생겼다. 사회적 체면에 손상이 된다. 소속감을 느낀다. 사생활이 침해된다. 개인의 자유를 구속한다.
정보교환	뭔가를 배우고 있다는 느낌이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게 한다. 변화에 앞서 가는 데에 도움을 준다. 뭔가 할 일이 있다.
경제적 도움	경제적 어려움 해결에 도움을 준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실제문제 해결	(경제적 문제 이외의) 실질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
내적 가치성	내면적 성숙을 경험할 수 있다. 내 인생목표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성	사회에 기여한다고 느낀다. 비교육적이다.

표 3. 조직특성 요인과 해당문항

요 인	해 당 문 항
개 방 성	이 모임은 가입이 쉽다. 이 모임은 탈퇴가 쉽다.
민 주 성	이 모임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민주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모임은 권한이 한 쪽으로 집중되어 있다(-).
미 래 성	앞으로 이 모임과 비슷한 종류의 모임이 더 많아질 것이다. 나는 10년 후에도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을 것이다.
조 직 성	이 모임의 사람들은 각자 맡은 일을 잘 알고 있다. 이 모임에서 내린 결정사항은 회원들에게 상당한 구속력이 있다.
사 회 성	이 모임의 활동은 사회전체를 위해 바람직한 활동이다. 이 모임은 사회 전체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활 동 성	이 모임은 활동이 활발하다.
모임만족도	나는 이 모임에 대해 만족한다. 이 모임이 나에게 중요하다 이 모임의 사람들은 서로 친하다.

주. 각 문항은 5점척도(1: 정말 그렇다, 3: 그저 그렇다, 5: 전혀 아니다)로 구성.

## 결과 및 논의

주관적 안녕감은 김완석과 김영진(1997)의 연구에 기초해 삶에 대한 만족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와 기분평정척도로 측정하였고, 낙관주의 - 비관주의는 Scheier와 Carver(1985)의 8문항 짜리 척도를 번안해서 사용하였다. SWLS와 기분평정척도는 주관적 안녕감을 알아보는 상보적인 척도이며 낙관주의 - 비관주의 척도는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성격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각 척도의 신뢰도로 각 척도의 내적합치도계수(Cronbach  $\alpha$ )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삶에 대한 만족척도는 .87로서 외국의 연구들에서 나타난 .62 - .89 수준에 비해 양호한 것이었고, 김완석 등(1997)의 .86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기분평정척도는 긍정적감정이 .84, 부정적 감정이 .87로 나타나서 이 역시 김완석 등(1997)의 .86과 .84와 별 차이가 없었다. 낙관주의 척도의 경우는 .69로서, 김완석 등(1997)의 .74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모임종류별 주관적 안녕감

표 4는 각 모임별 주관적 안녕감과 낙관주의 척도의 평균(표준편차)를 정리한 것이다.

각 변인별로 모임종류별 평균의 차이를 변량분석한 결과, 표 4의 마지막 줄에 표시한 것처럼, 주관적 안녕감 척도들은 모두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낙관주의도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각 모임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이 서로 달라서 그대로 해석할 수가 없다. 이는 주관적 안녕감이 나이, 소득 등 주요 인구통계적 특성이나 성격과 같은 개인차 변인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본 연구에서도 나이는 인생만족도( $r = .13, p < .01$ ), 부정적감정( $r = .25, p < .01$ ), 긍정적감정( $r = .23, p < .01$ )와 모두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고, 가구소득도

표 4. 공동체별 주관적 안녕감과 낙관주의 평균(표준편차)

	인생만족도	부정적감정	긍정적감정	낙관주의
전 체	4.03(1.26)	5.08(1.01)	3.58(1.11)	4.45( .71)
부녀회	3.84( .94)	5.26( .79)	3.36(1.03)	4.27( .65)
상조회	3.97(1.41)	5.34( .69)	3.77(1.19)	4.29( .90)
공동APT	4.24(1.26)	5.41( .92)	4.05(1.04)	4.58( .75)
동창회	4.59( .96)	5.25( .89)	3.79(1.05)	4.68( .55)
향우회	4.54( .70)	5.50( .38)	2.51( .67)	4.55( .59)
두 레	4.20(1.50)	4.73(1.34)	3.96(1.21)	4.50( .74)
여신도회	4.60(1.16)	5.29(1.00)	4.07(1.19)	4.64( .65)
PC통신	3.64(1.06)	4.66(1.01)	3.66(1.05)	4.37( .79)
등산모임	4.09(1.16)	5.07( .85)	3.44( .97)	4.48( .45)
한살림	4.53( .89)	5.23(1.02)	3.90(1.04)	4.51( .69)
일반봉사	3.90(1.27)	5.11( .96)	3.78(1.17)	4.50( .66)
공동육아	4.06( .95)	4.91( .83)	3.59( .98)	4.64( .72)
독신남자	2.40( .97)	4.07( .65)	3.12( .58)	3.94( .76)
독신여자	3.72(1.12)	4.23(1.01)	3.44( .92)	4.35( .75)
노인정	4.32(1.11)	6.12( .86)	3.15(1.31)	4.52( .57)
장애봉사	3.38(1.46)	4.58(1.07)	3.26( .95)	4.20( .69)
F-value	9.38a	11.62a	7.30a	3.26a

주) 각 척도 모두 7점 척도로 환산한 점수이며, 값이 클수록 의미상 긍정적임.  
a:  $p < .0001$

인생만족도( $r=.16, p<.01$ ), 부정적감정( $r=.10, p<.05$ ), 긍정적감정( $r=.20, p<.01$ ) 모두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개인의 성격요인으로서 낙관주의는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가 있다(김완석과 김영진, 1997). 본 연구에서도 낙관주의는 인생만족도( $r=.49, p<.01$ ), 부정적감정( $r=.37, p<.01$ ), 긍정적감정( $r=.39, p<.01$ ) 모두와 매우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나이와 소득, 그리고 낙관주의를 공변인으로 하는 공변량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이들 변인의 영향을 통제했을 때에도 모임종류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집단구성원의 인구사회적 차이가 아니라 다른 변인들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분석결과, 이들 변인들을 통제하고도 인생만족도( $F_{15,592}=6.70, p<.01$ )와 부정적 감정( $F_{15,589}=6.82, p<.01$ ), 긍정적 감정( $F_{15,597}=4.85, p<.01$ )의 집단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모임의 종류에 따라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런 차이가 나이나 소득과 같은 인구통계적 특성뿐 아니라 낙관주의와 같은 개인차 변인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은 각 모임 고유의 독특한 특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독자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각 지표들을 집단별로 살펴보면, 인생만족도에서는 여신도회와 동창회, 향우회와 한살림회가 다른 집단들에 비해 높았다. 이에 비해 독신남자모임은 인생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PC통신동호회, 독신여자, 장애봉사모임 등이 상대적으로 인생만족도가 낮은 집단이었다.

부정적감정의 경우에는 독신남자와 독신여자 모임, PC통신모임, 두레마을이 부정적감정의 경험정도가 높았고, 향우회, 한살림회, 노인정 등이 가장 낮았다. 또한 긍정적감정도 모임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여신도회, 동창회, 두레마을, 한살림회 등이 다른 모임에 비해 긍정적감정경험이 높았고, 이에 반해 향우회, 독신남자, 노인정 등은 상당히

낮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동창회, 한살림회, 여신도회의 사람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독신남자, 독신여자, 장애봉사, PC통신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공동모임의 경험과 주관적 안녕감

표 5는 공동활동/생활에서 경험하는 의미와 정서 심리적 특성을 모임종류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모임활동을 통해 정서적인 면에서는 부담보다는 안정을 더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임의 가장 큰 기능은 사회적 관계유지를 원활하게 해준다고 느끼고 있으며, 자신의 모임활동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적인 도움이나 실질적인 문제해결에는 모임활동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런 결과는 전체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모임활동이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보다는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기능을 하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독신남자와 공동육아, 상호회의 경우에는 다른 모임에 비해 실질적 문제의 해결이 매우 큰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역시 이들 집단이 육아나 자녀보육이라는 실제문제의 해결을 위해 조직된 것이거나(공동육아와 독신남자), 아니면 동일한 지역단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일상적인 실제적 문제들을 다루는 집단(상호회)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표 6은 모임의 의미지각 차원과 주관적 안녕감 변인들의 상관계수 행렬이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인생만족도는 사회적 가치성만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정적감정에는 사회적 관계와 실제문제해결이, 긍정적감정에는 정서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가 유의미한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모임의 의미지각은 주관적 안녕감 변인들과 별로 관계가 없다



표 5. 공동활동의 의미지각 요인별 평균(표준편차)

	정서심리 안정	정서심리 부담	사회적 관계	정보 교환	경제적 도움	실제문제 해결	내적 가치성	사회적 가치성
동창회	3.98(.81)	3.85(.80)	4.23(.39)	3.22(.74)	2.64(.53)	2.45(1.01)	2.89(.88)	3.79(.66)
향우회	4.67(.65)	2.05(.89)	3.40(.75)	4.08(.54)	2.82(.67)	3.64(1.16)	3.83(.83)	4.00(.69)
상조회	3.89(.90)	3.18(.94)	3.78(.73)	3.40(1.05)	2.83(.83)	2.91(1.23)	3.32(.88)	3.56(1.13)
두레	3.92(.90)	2.47(.84)	3.60(.78)	3.61(.76)	2.56(1.12)	3.14(1.11)	4.09(.91)	4.09(.72)
한살림	3.60(.83)	3.26(1.04)	4.09(.52)	3.58(.80)	2.58(.74)	2.76(1.23)	3.37(1.02)	4.28(.56)
PC통신	4.08(.67)	3.07(.91)	3.99(.58)	3.61(.73)	2.32(.67)	2.61(1.12)	3.18(.92)	3.56(.61)
여신도회	4.39(.71)	3.04(1.21)	4.28(.43)	4.09(.71)	2.71(.76)	2.76(1.43)	3.96(1.08)	4.40(.66)
공동육아	3.91(.73)	2.18(.66)	4.10(.46)	3.41(.71)	2.03(.77)	3.94(1.09)	3.32(.86)	3.92(.44)
부녀회	3.80(1.02)	3.37(1.00)	4.01(.54)	3.39(1.00)	2.55(.79)	2.40(1.43)	3.06(1.03)	3.66(.85)
노인정	4.53(.71)	4.55(.61)	4.48(.38)	3.13(.76)	3.11(.65)	2.21(1.17)	2.63(.85)	3.36(.75)
공동APT	4.29(.71)	3.72(1.01)	4.16(.48)	3.50(.72)	2.87(.81)	2.51(1.38)	3.05(1.11)	3.59(.79)
독신남자	4.98(.15)	4.83(.48)	4.72(.32)	4.65(.43)	2.79(.63)	4.74(.44)	4.70(.46)	4.65(.47)
독신여자	3.63(.99)	3.73(.82)	3.79(.69)	3.25(1.07)	2.70(.55)	2.20(1.24)	2.78(1.23)	3.63(.90)
참길봉사	3.95(.67)	2.75(1.01)	4.05(.50)	3.83(.61)	2.46(.64)	2.54(1.19)	3.85(.84)	4.16(.61)
장애인	4.07(.80)	3.08(1.00)	4.05(.55)	3.64(.77)	2.64(.64)	2.76(1.09)	3.61(.94)	3.81(.71)
등산모임	4.33(.73)	3.36(.88)	4.28(.67)	3.55(.88)	2.33(.76)	3.00(1.26)	3.52(1.16)	3.46(.75)
Total	4.13(.84)	3.27(1.15)	4.07(.63)	3.64 (.85)	2.63(.76)	2.91(1.34)	3.48(1.07)	3.90(.80)
F-ratio	9.76a	27.84a	13.52a	10.56a	4.24a	13.28a	13.77a	10.45a

주: 각 차원은 5점 척도로 환산한 것이며, 점수가 클수록 더 그렇다는 것을 의미한다.  
a; p<.001

표 6. 모임의 경험지각차원과 주관적 안녕감, 성격변인의 상관계수(N=539)

	정서적 안정	정서적 부담	사회적 관계	정보 교환	경제적 도움	실제문제 해결	내적 가치	사회적 가치	인생 만족도	부정적 감정	긍정적 감정	낙관 주의
정서심리적 안정	1.00											
정서심리적 부담	.17a	1.00										
사회적 관계	.44a	.44a	1.00									
정보교환	.47a	-.04	.26a	1.00								
경제적 도움	.16a	.28a	.10c	.08	1.00							
실제문제 해결	.36a	-.11c	.09c	.38a	.13b	1.00						
내적 가치성	.40a	-.14a	.19a	.60a	.07	.47a	1.00					
사회적 가치성	.31a	-.06	.32a	.40a	.05	.26a	.48a	1.00				
인생만족도	.03	-.07	.04	-.08	.03	-.07	.01	.12b	1.00			
부정적감정	.08	.08	.10c	-.08	.09	-.11c	-.06	-.03	.50a	1.00		
긍정적감정	.10c	.08	.20a	.02	.03	-.07	.01	.07	.36a	.33a	1.00	
낙관주의	.15a	.04	.16a	.07	.01	-.00	.02	.14a	.51a	.39a	.42a	1.00

주) a; p<001, b; p<.01, c; p<.05

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해도, 그 크기는 상당히 작다. 이런 결과는 이들 공동모임을 통해 경험하는 심리적 지각들이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낙관주의는 주관적 안녕감의 세 지표 모두와 매우 높은 상관계수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주관적 안녕감이 성격 특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7, 표 8, 표 9는 각각 인생만족도, 부정적 감정, 긍정적 감정을 기준변인으로 하는 단계적 회귀분석의 결과인 바, 이 분석에는 예인변인으로서 본 연구에서 주관적 안녕감과 유의미한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나이와 가구소득, 그리고 하향변인으로서 성격요인인 낙관주의를 포함시켰다.

위 표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낙관주의와 나이는 주관적 안녕감의 모든 지표들에 대해 강력한 예인요인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외에도 실제 모임에서 경험하는 내용들이 주관적 안녕감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생만족도에 대해서는 단순상관계수로는 유의미한 관계를 갖지 않았던 정보교환과 정서심리적 부담이 나이이나 가구소득, 낙관주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유의미한 추가적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정적 감정에 대해서는 모임의 사회적 가치지각이, 긍정적 감정은 모임의 사회적 관계와 실제문제 해결이라는 기능이 독자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인생만족도를 기준변인으로 하는 단계적 회귀분석의 결과

단계별	삽입된 변인	R <sup>2</sup>	R <sup>2</sup> 증가분	회귀식 F치	최종회귀식 BETA
1	낙관주의	.26		196.43	.50
2	연령	.28	.02	105.82	.13
3	정보교환	.29	.01	74.40	-.17
4	정서심리적인 부담	.30	.01	58.63	-.11
5	가구소득	.31	.01	49.55	.13
6	내적가치성	.32	.01	42.89	.12

표 8. 부정적 감정을 기준변인으로 하는 단계적 회귀분석의 결과

단계별	삽입된 변인	R <sup>2</sup>	R <sup>2</sup> 증가분	회귀식 F치	최종회귀식 BETA
1	낙관주의	.15		96.86	.40
2	연령	.17	.02	55.35	.15
3	사회적가치성	.18	.01	39.74	-.11

표 9. 긍정적 감정을 기준변인으로 하는 단계적 회귀분석의 결과

단계별	삽입된 변인	R <sup>2</sup>	R <sup>2</sup> 증가분	회귀식 F치	최종회귀식 BETA
1	낙관주의	.17		113.92	.39
2	연령	.20	.03	70.04	-.18
3	사회적관계	.22	.02	52.66	.15
4	실제문제해결	.23	.01	40.75	-.08

이러한 결과는 모임활동의 경험이나 의미지각이 개인의 낙관주의적 성격이나 나이, 가구소득의 영향을 배제하고도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며, 주관적 안녕감이 성격과 같은 개인특성의 영향을 받는다는 하향이론적 설명과 일상적 생활경험의 영향을 받는다는 상향이론적 주장을 모두 지지하는 것이다.

### 공동모임 집단별 조직특성과 모임만족도

각 요인에 대한 집단별 평균치와 표준편차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모임의 개방성에서는 집단간에 차이가 많았다. 대체로, 동창회, 상조회, 두레마을, 한살림, PC통신모임, 여신도회, 공동육아, 부녀회, 공동APT 모임 등이 다른 모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 집단들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비자발성이 높거나 또는 특별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동창회와 상조회, 한살림, 부녀회, 공동APT는 각기 학연이나 지연이 토대가 되며, 두레마을과 여신도회는 종교적 공통성이 토대가 되는 모임이다. 또한 공동육아모임은 지역과 함께 육아대상인 아이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토대가 되기 때문에 가입이나 탈퇴에 자발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모임으로 볼 수 있다. 독특한 것은 이러한 제약이 전혀 없는 PC통신모임의 개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PC통신모임은 직장인 동호회로서 직장인이 가입대상이라는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이 자격조건은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개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순수하게 PC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임들의 경우, 회원의 이동이 매우 많기 때문에 관리상의 문제나 집단응집력의 유지를 위해 별 활동을 하지 않는 회원들에 대한 제재수단을 상당히 많이 마련해 놓고 있는데, 이런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모임의 민주적 운영에 대해서는 대개의 모임이

그런 대로 민주적이지만 특히 향우회가 가장 민주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도 경직되지 않은 친목단체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다.

모임들 이혼한 남자들의 모임인 독신남자모임과 생활공동체인 두레마을과 한살림모임의 회원들이 자신들이 소속한 모임의 사회적 가치나 의미를 가장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동육아모임과 종교적 배경을 가진 여신도회, 그리고 역사가 오래된 참길봉사회의 구성원들 역시 자신의 모임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를 높이 부여하는 경향이 분명하였다. 반면에 부녀회, 공동APT, 동창회와 상조회 등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공동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상대적으로 낮게 지각하고 있었다.

모임의 활동성 수준에서는 역시 젊은 층으로 이루어진 집단인 PC통신모임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그 다음이 독신남자였다. 그리고 이들이 접근이 항상 용이한 컴퓨터를 사용하여 모임에 참여하는 점도 활동성을 올리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독신남자모임의 경우 모임활동이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살림의 경우 활동성을 가장 낮게 평가했는데, 이는 평회원들이 활동하는 방법은 이웃단위의 소규모 공동체를 형성하여 운영하는 소비조합형식이기 때문에 개인의 활동을 별로 요구하지 않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모임에 대한 만족도는 독신여자와 두레마을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높은 평가를 하였고 특히 독신남자와 노인정에서 가장 높았다. 독신여자모임의 경우에는 구성원들이 느낄 수 있는 상당한 사회적 편견과 불이익으로 인한 모임의 활동에 대한 높은 기대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짐작된다. 두레마을의 낮은 만족도는 설립취지를 현실화하는데서 오는 어려움이 표현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다.

표 10. 모임별 조직요인의 평균(표준편차)

	개방성	민주성	미래성	조직화	사회성	활동성	모임만족도
동창회	2.81(1.14)	3.29( .66)	3.99( .70)	3.52( .76)	3.35( .91)	3.91( .83)	4.15( .73)
향우회	4.92( .29)	4.03( .64)	4.10( .83)	3.94( .74)	3.96( .68)	4.23( .90)	4.11( .65)
상조회	3.32(1.06)	3.24( .79)	3.76( .82)	3.60(1.03)	3.43(1.13)	3.89(1.32)	4.22( .89)
두레	3.88( .87)	3.41( .51)	3.92( .97)	3.48( .82)	4.31( .76)	3.78(1.02)	3.96( .79)
한살림	3.65( .99)	3.24( .63)	3.88( .86)	3.55( .93)	4.21( .75)	3.32(1.04)	4.07( .81)
PC통신	3.74( .87)	3.36( .56)	3.77( .71)	3.83( .69)	3.68( .87)	4.73( .52)	4.29( .59)
여신도회	3.60(1.29)	3.34( .84)	3.93(1.05)	3.73( .95)	4.09( .99)	4.20( .81)	4.38( .76)
공동육아	2.79( .85)	3.23( .40)	3.56( .58)	3.74( .88)	4.09( .54)	4.09( .80)	4.39( .54)
부녀회	3.32(1.45)	3.32( .66)	3.54(1.19)	3.59(1.02)	3.05(1.42)	4.02(1.04)	4.10( .90)
노인정	4.94( .21)	3.27( .62)	4.14( .71)	4.21( .84)	3.64(1.08)	4.27( .98)	4.84( .40)
공동APT	3.50(1.37)	3.41( .54)	3.53( .91)	3.38(1.01)	3.16(1.09)	3.64(1.10)	4.17( .74)
독신남자	4.99( .08)	3.09( .37)	4.62( .54)	2.90( .52)	4.81( .41)	4.56( .67)	4.95( .19)
독신여자	4.58( .58)	3.50( .52)	3.70( .56)	3.15(1.06)	3.85( .77)	3.42(1.02)	3.45( .91)
참길봉사	4.31( .77)	3.73( .56)	4.05( .71)	3.37( .83)	4.04( .68)	3.73( .92)	4.19( .65)
장애인	4.09( .99)	3.49( .73)	3.90( .92)	3.99( .79)	3.80( .79)	3.89(1.02)	4.26( .68)
등산모임	4.30( .78)	3.70( .75)	4.00( .82)	3.77( .86)	3.38( .94)	4.23( .82)	4.36( .61)
Total	3.86(1.18)	3.41( .66)	3.91( .87)	3.59( .90)	3.79(1.02)	3.98(1.00)	4.25( .75)
F-value	21.43a	5.94a	4.42a	5.14a	11.72a	5.82a	7.05a

주. 점수는 5점척도이며 값이 클수록 그렇다는 것임. a;  $p < .001$

표 11. 모임특성차원과 모임만족도, 주관적안녕감, 낙관주의의 상관계수 행렬

	개방성	민주성	미래성	조직화	사회성	활동성	만족도	인생 만족도	부정적 감정	긍정적 감정	낙관 주의
개방성	1.000	.165**	.117**	.098*	.132**	.060	.038	.106**	.020	.100*	.107**
민주성	.165**	1.000	.053	.129**	.106**	.030	.001	.098*	.067	.004	.043
미래성	.117**	.053	1.000	.171**	.372**	.274**	.421**	.031	.017	.042	.083**
조직화	.098*	.129**	.171**	1.000	.145**	.329**	.240**	.117**	.124**	.017	.130**
사회성	.132**	.106**	.372**	.145**	1.000	.252**	.337**	.000	.117**	.012	.026
활동성	.060	.030	.274**	.329**	.252**	1.000	.369**	.028	.004	.025	.016
모임만족도	.038	.001	.421**	.240**	.337**	.369**	1.000	.026	.056	.040	.101*
인생만족도	.106**	.098*	.031	.117**	.000	.028	.026	1.000	.467**	.355**	.486**
부정적감정	.020	.067	.017	.124**	.117**	.004	.056	.467**	1.000	.262**	.371**
긍정적감정	.100*	.004	.042	.017	.012	.025	.040	.355**	.262**	1.000	.390**
낙관주의	.107**	.043	.083*	.130**	.026	.016	.101*	.486**	.371**	.390**	1.000
나이	.181**	.014	.136**	.078*	.022	.033	.168**	.125**	.245**	.231**	.012
가구소득	.269**	.061	.018	.045	.064	.043	.051	.159**	.096*	.200**	.191**
사례수	632	624	622	626	629	631	631	633	622	632	633

주. \*\*,  $p < .01$ , \*,  $p < .05$

**공동모임의 조직특성, 모임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

앞서 말했듯이, 모임의 가입탈퇴의 용이함(개방성)이나 의사결정의 민주성, 권한집중(민주성), 역할분화나 결정사항의 구속력(조직화), 모임의 사회적 바람직성이나 사회적 영향력(사회성), 모임의 활발함(활동성)과 같은 특성은 그 모임에 대한 구성원의 만족도나 모임의 중요성 지각, 구성원들의 친교지각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1은 모임의 구조적 특성과 만족도, 주관적 안녕감, 낙관주의의 상관계수를 행렬로 정리한 것이다.

먼저, 모임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어떤 특성차원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임만족도를 기준변인으로 하고 6개의 구조적 특성차원을 예언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12에서 볼 수 있듯이, 모임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미래성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활동성, 사회성, 조직화의 순이었다. 그러나 모임의 개방성이나 민주성은 독특한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모임만족도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했다. 표 1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모임만족도는 주관적 안녕감의 세가지 지표 모두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개방성, 민주성, 조직화, 사회성 등의 요인은 각기 인생만족도나 부정적 감정, 긍정적 감정과 일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관관계 양상은 이러한 공동모임의 조직특성이 모임만족도

와 관계없이 직접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주관적 안녕감의 세 지표를 각기 기준변인으로 해서, 이들 조직특성요인들이 나이와 가구소득, 낙관주의와 같은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통제하고도 독자적인 영향력을 갖는가를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인생만족도에는 개방성과 민주성이, 부정적 감정에는 사회성과 민주성이 나이와 낙관주의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긍정적 감정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모임의 조직특성이나 모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주관적 안녕감에 대해 개인차 변인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독자적 영향력이 개인차 변인 뿐 아니라 공동모임에서 경험하는 경험지각과도 관계없이 나타나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관적 안녕감을 기준변인으로 하고, 조직특성변인, 개인차 변인, 경험지각변인을 예언변인으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3과 표 14는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인생만족도에 대해서는 낙관주의와 정서심리적 부담, 가구소득, 나이에 이어 모임의 개방성이 인생만족도에 추가적인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적 감정에 대해서는 사회성, 민주성과 조직화수준이 낙관주의와 나이, 실제문제 해결과 함께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모임의 조직적 특성이 그 자체로서 개인차 변인이나 개인이 공동

표 12. 모임만족도를 기준변인으로 하는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단계별	삽입된 변인	R <sup>2</sup>	R <sup>2</sup> 증가분	회귀식의 F치	최종회귀식의 Beta
1	미래성	.167		126.742	.273
2	활동성	.241	.074	99.995	.225
3	사회성	.264	.023	75.141	.163
4	조직화	.272	.008	58.803	.099

표 13. 인생만족도를 기준변인으로 하는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단계별	삽입된 변인	R <sup>2</sup>	R <sup>2</sup> 증가분	회귀식의 F치	최종회귀식의 Beta
1	낙관주의	.264		191.632	.478
2	정서심리적 부담	.281	.017	103.750	-.160
3	가구소득	.297	.016	74.788	.070
4	나이	.306	.009	58.510	.111
5	개방성	.314	.012	48.324	-.077
6	실제문제해결	.320	.006	41.443	-.099
7	학력	.325	.005	36.328	.099
8	경제적 도움	.331	.006	32.545	.081

표 14. 부정적 감정을 기준변인으로 하는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단계별	삽입된 변인	R <sup>2</sup>	R <sup>2</sup> 증가분	회귀식의 F치	최종회귀식의 Beta
1	낙관주의	.162		102.453	.387
2	사회성	.182	.020	58.675	-.132
3	나이	.196	.014	43.002	.127
4	민주성	.204	.008	33.690	.076
5	실제문제 해결	.210	.006	27.991	-.093
6	조직화	.216	.006	24.126	.079

모임에서 경험하는 의미지각 외에도 그 자체로서 인생만족도나 부정적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의 성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적인 공동체 생활/활동 모임들의 여러 가지 특성이 그 모임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고자 했다. 다른 연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정서적 경험과 인지적 해석 뿐 아니라 성격이나 사회경제적 환경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도 낙관주의와 같은 성격변인이나 나이와 같은 인구통계 변인은 공동모임과 관련해서 경험하는 정서나 공동모임의 의미해석을 받영하는 변인들에 비해 주관적 안녕감에 더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낙관주의와 나이, 가구소득과 같은 변인들의 영향을 통제 한 상태에서 공동모임의 정서적 인지적 경험들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떤 공동모임을 하는가에 따라 주관적 안녕감에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는 나이나 가구소득, 낙관주의의 영향을 통제해도 나타난다.

둘째, 주관적 안녕감과 가장 관계가 깊은 요인은 낙관주의와 같은 성격요인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나이와 가구소득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동모임에서 경험하는 정서심리적 경험이나 집단의 의미지각은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영향은 나이나 소득, 낙관주의의 영향을 통제해도 나타난다. 특히 인생만족도에는 모임 활동을 통한 정보교환과 정서심리적 부담감이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모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지각은 주관적 안녕감의 부정적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긍정적 감정에는 모임에서 경험하는 인간관계 이외에 모임을 통해 경험하는 실제적 문제 해결도 영향을 미친다.

넷째, 모임의 조직구조적 특성은 모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즉 모임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모임의 활동성이나 사회성, 조직화 등은 모임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다. 그러나 모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주관적 안녕감과 직접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모임만족도와 높은 상관을 갖는 활동성이나 조직화는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섯째, 모임의 조직구조적 특성으로서 개방성과 민주성, 사회성은 주관적 안녕감 중에서 특히 인생만족도와 부정적 감정에 독자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영향은 낙관주의나 나이, 가구소득과 같은 개인차 뿐 아니라 공동모임을 통해 경험하는 의미지각의 영향을 통제해도 유의미하다.

본 연구결과는 어떤 생활/활동에 참여하느냐 하는 것이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런 영향은 낙관주의와 같은 개인의 고유한 성격 뿐 아니라, 나이나 가구소득과 같은 개인의 인구사회경제적 처지에 따른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자발적 공동체 활동이 그의 주관적 안녕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이런 결과를 공동모임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적 관계로 해석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아무튼, 어떤 활동을 하는가에 따라 주관적 안녕감이 달라진다는 것만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동창회나 향우회, 한살림회, 여신도회, 공동APT, 노인정 등의 공동체는 연구대상인 16개 공동체 중에서 상대적으로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독신자모임, 장애봉사, PC통신 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결과에 대한 해석은 쉽지 않다. 현재로서는 대체로 집단의

응집력이 이들 집단을 구분해 줄 수 있는 차원이 아닌가 한다. 추후 연구의 과제이다.

이러한 공동모임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본 연구의 결과는 구성원들이 집단생활/활동을 통해 자신의 집단의 의미를 어떻게 지각하는가 하는 경험지각과 집단자체의 조직적 특성이 각기 구성원들의 주관적 안녕감에 서로 고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런 결과들은 각기 다른 공동모임의 특성들이 구성원들의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어떤 연구들도 본 연구에서처럼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이런 관계를 밝혀낸 경우는 없다. 또한 본 연구가 시작단계에서 시도했던 것처럼, 대상자를 공동모임을 하는 사람으로 국한시켰던 바, 이러한 자발적 공동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표본에 포함시켰다면, 공동모임의 심리적 조직적 특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더 명확하게 밝혀냈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또한 향후 연구의 과제이다.

독특한 것은 공동모임의 경험지각 차원들이나 모임의 구조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들 대부분이 주관적 안녕의 지표들과 높은 상관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변인들이 낙관주의나 나이, 가구소득과 같은 개인차변인을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인생만족도나 부정적 감정에 추가적인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경험지각차원에서는 공동모임에서 경험하는 정보교환과 심리적 부담, 공동모임의 사회적 가치지각, 실제 문제 해결 등의 차원이 하나이상의 주관적 안녕감 지표들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관계의 방향을 보면 인생만족도에 대해 뭔가 세상을 알게된다는 느낌(정보정보교환)과 심리적 부담이 클수록 인생만족도가 낮아지고, 모임의 사회적 가치를 크게 느낄수록 인생만족도가 높아지는 정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회적 가치를 크게 느낄수록 부정적 감정이 덜하며, 사회적 관계를

많이 경험할수록, 그리고 실제문제해결기능을 덜할수록 긍정적 감정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공동모임의 경험지각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매우 재미있는 현상을 시사한다. 이는 공동모임의 실질적이고 경제적 도움이 오히려 주관적 안녕감에 부정적일 수 있으며, 이보다는 정서적인 긍정적 경험과 모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주관적 안녕감의 증진에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본 연구의 대상인 자발적인 공동모임이 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 문제해결이나 경제적 도움보다는 공동체 생활과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친교와 정서적 유대 같은 사회심리적 욕구의 충족을 통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현상은 모임의 조직특성에 관한 결과에서도 엿볼 수 있다. 특히, 공동모임의 개방성이나 민주성, 사회성 등은 다른 특성에 비해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독자적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래성이나 활동성, 조직화 등이 모임만족도와 높은 상관관을 보였던 결과와 함께 해석하면, 공동모임의 느슨하고 자유로울 뿐 아니라 누구나 자신의 견해를 말하고 참여할 수 있고 사회전체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어떤 구체적 목표를 위해 잘 조직화 되고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에 비해 구성원의 주관적 안녕감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런 결과 또한, 공동모임이 실제 생활의 문제에 구체적인 도움을 준다는 측면보다는 개인적인 사회심리적 욕구충족을 제공하는 기능을 통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준다는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 참 고 문 헌

김혜숙, 김영진, 김완석, 나은영, 이중환, 조성을 및 최진호(1997). 한국인의 공동생활 및 활동과 주관적 안녕감: 통합적 고찰. 한국심리학회:

- 사회문제, 3(1), 83-96.
- 김혜숙과 최진호(1997). 한국인의 모임활동과 주관적 안녕감. 한국심리학회: 사회문제, 3(1), 41-60.
- 김완석과 김영진(1997). 주관적 안녕척도: 공동생활 및 활동과의 연관성. 한국심리학회: 사회문제, 3(1), 61-82.
- Brief, A. P., Butcher, A. H., George, J. M., & Link, K. E. (1993). Integrating bottom-up and top-down theories of subjective well-being: The case of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646-653.
- Cooper, H., Okamura, L., & Gurke, V. (1992). Social activity and subjective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3, 573-583.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Feist, G. J., Bodne, T. E., Jacobs, J. F., Miles, M. m & Tan, V. (1995). Integrating top-down and bottom-up structural modes of subjective well-being: A Longitudinal.
- McCormick, E. J., & Ilgen, D. (1985).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Inc..
- Okun, M. A., Stock, W. A., Haring, M. J., & Witter, R. A. (1984). Health and subjective well-being: A Meta-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9, 111-131.
- Quevillon, R. P., & Lee, H. (1983). Social involvement as a predictor of subjective well-being among the rural institutional aged.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Geriatrics*, 1, 13-19.
- Scheier, M. F., & Carver C. S. (1985). Optimism, coping, and health: Assessment and implications of generalized outcome expectancies. *Health Psychology*, 4, 219-247.



## Communal Life/Activity and Subjective Well-Being

Wan-Suk Gim and Youngjin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Ajo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riences of the people participating in communal life/activity and their subjective well-being. The 684 subjects from the 16 voluntary groups were sampled and surveyed with a questionnaire that examined major characteristics of the group activity such as interpersonal relationship within the group, emotional/psychological experiences from the group activity, level of participation in the group activity,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group. They also completed measures including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SWLS), the Mood Evaluation Scale(MES), and Life Orientation Scale(LOT). Results showed that 1) the SWLS was affected by factors such as the information exchanges among group members and the emotional/ psychological burden, 2) there was no relationship between the SWLS and overall group satisfaction, and 3) the SWLS and the negative emotion scores of the ME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openness, democratic decision making, and social gathering. Especially, the results showed that various aspects of the communal life/activity were significantly related with the subjective well-being even after factoring out the effects of personality variable (i.e., the optimism that measured from the LOT) and demographic variables(i.e., age and income).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